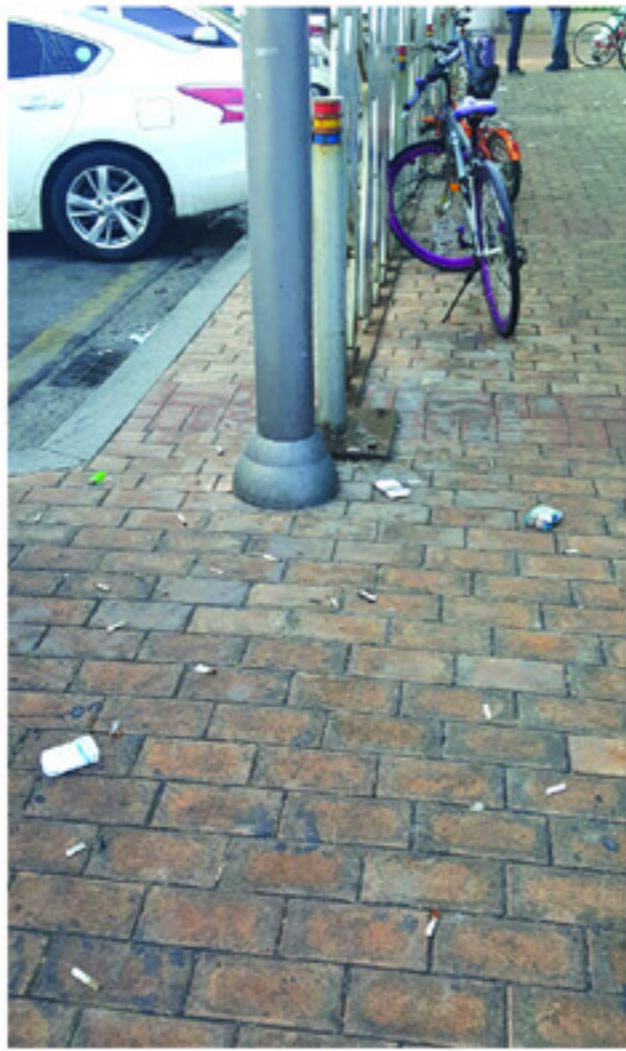


평택역 주변 금연구역 '흡연 천국' 된지 오래



**2명이 오전 한차례 단속... 매주 목요일 야간단속 뿐
 청소년 흡연 문제 심각하지만 별다른 대책 없어...ing
 2016년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부과 98건에 머물러**

간접흡연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흡연단속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시민 김모(25·여)는 "출퇴근 때마다 평택역을 이용하는데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 봤지만, '금연구역단속을 계속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출근시간대 평택역 주변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곳을 지나가는 시민들은 흡연자들이 내뿜는 담배연기를 피해 재빨리 발걸음을 옮기기에 바

빳다. 일부 시민들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흡연자들은 태연하게 흡연 행위를 계속했다. 흡연으로 인한 문제는 공공시설도 예외는 아니었다. 평택시청민원센터 앞 자전거 보관소 인근에서도 흡연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금연구역 표지판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채 많은 사람들이 흡연을 하고 있었다. 문제는 흡연자들 중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도 눈에 띄었으나 누구하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흡연단속에 대해 "서부·남부·북부로 구역을 나누어 단속원을 2명씩 배치해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흡연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며 단속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이어 "평일에도 매주 목요일을 이용해 야간 단속을 하고 있는데 평택역만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평택시 관내에 1만 2000여 개의 금연구역이 있는데, 매번 상주하며 단속을 할 수는 없지 않겠냐"며 "미원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고 있으나, 흡연자들이 자리를 떠나고 없으면 과태료 부과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단속원들이 직접적인 흡연 행위를 단속하기보다는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 여부를 점검하는 데만 동원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금연구역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98건에 불과해 평택시의 흡연단속 의지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있다.

이보용 기자

byleec@hanmail.net

송탄농협 임원선거 관행 금품 살포 정황 포착

홍선의 조합장, 일부 임원들 줄줄이 철창신세(?)

30만원 '낙선' 50만원 '당선'

자수하면 감경, 출석 요구시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송탄농협 홍선의 조합장이 지난 2월 선거법 위반으로 형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12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어 벌어진 송탄농협 조합원 임원(비상임 이사)선거에서도 일부 비 상임이사 예비후보들이 당선 목적으로 조합원(대의원)에게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6월9일 평택경찰서는 송탄농협 조합원 임원(비상임 이사)선거에서 조합원(대의원103명)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한 정황을 포착,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송탄농협 조합원임원 선거는 진위면과 송탄·서탄·고덕지역 등 4개 지역의 비상임 이사를 선출하는 것으로 고덕지역은 단일후보가, 진위면과 송탄·서탄 지역의 경우 각 2명의 후보가 나와 경선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예비후보들이 103명의 대의원을 상대로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자수를 하면 본인이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에 처하고, 과태료의 1/2을 감경할 수 있어 결국 받은 돈만 내

면 된다"고 밝히고 "수사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게 되면 받은 금액의 최고 50배, 기본 30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자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현재 일부 이사와 대의원들이 자수를 한 상태"로 "나머지 대의원들을 상대로 핸드폰 등을 압수, 경기남부지방청에 삭제된 내용들을 복원의뢰 하는 등 수사에 상당부분 진척이 있다"고 말해 사건의 빠른 종결을 예고 했다.

송탄농협의 조합원 수는 5700명으로 해당지역 조합원들이 지역별 대의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총 15명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된다. 임원의 구성을 보면 조합장 1명(임기 4년), 감사 2명(임기 3년), 사외이사 1명(임기 2년), 비상임이사 10명(임기 4년), 상임이사 1명(임기 2년) 등으로 제각각 선출시기가 달라 거의 매년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 김 모씨(55)는 "이번 선거는 송탄지역의 문제만이 아니고 평택시 전체 농협의 관행이 불거져 나온 단편적인 문제란 것을 조합원 대부분이 알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이런 몸쓸 관행들이 뿌리 뽑아지는 계기가 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최 모씨(56)는 "반장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다"라며 "청렴과 도덕성을 망각한 파렴치한 행태로, 농협이 농민과 시민을 위한 진정한 기관으로 탈바꿈되지 못하고 신뢰를 계속해서 잃어 간다면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흡소리 당소리

하늘도 감동한 평택 가족캠핑스마트영상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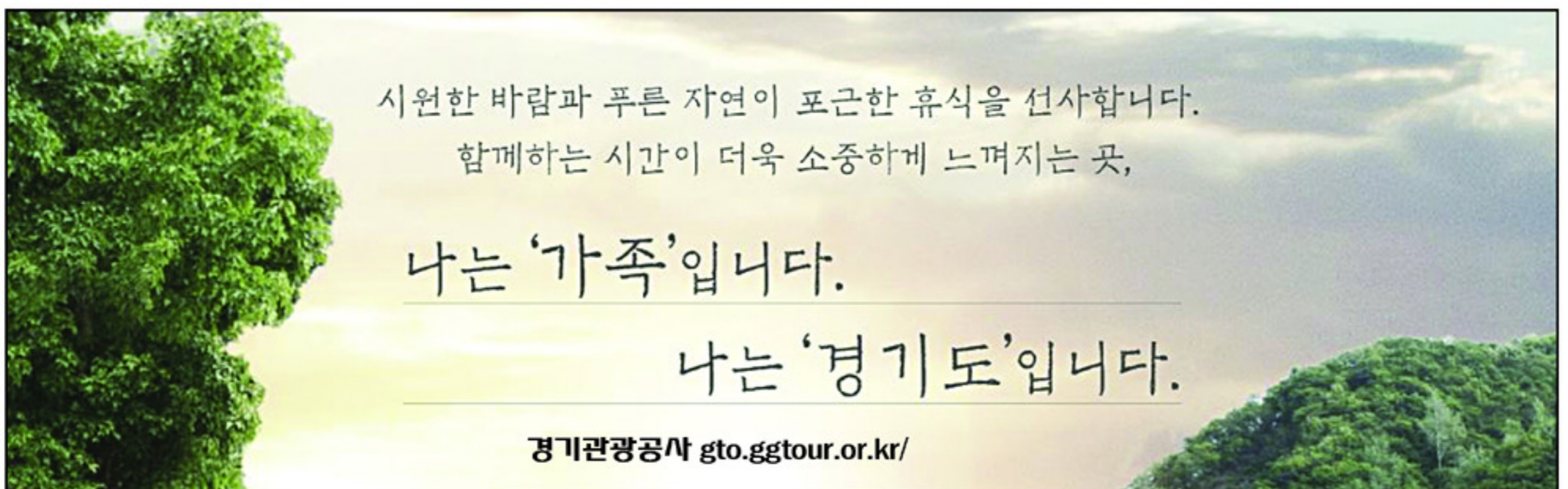
○...6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평택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가족캠핑스마트영상제! 올해도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어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는데...더욱 감사한 건 스마트영상제 일정 이후 그토록 기다리던 단비가 내렸다는 사실.

흡연천국 평택역 금연구역

○...출퇴근 시간, 평택역 주변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들고 구름과자 시식에 여념 없는 사람들로 붐비는데, 보건소 관계자 왈 "하루 종일 상주해서 단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속 구역 또한 많아 어쩔 수 없다"며 너물라라...그래도 매일 오전 두 시간, 주1회 야간 단속은 실시하고 있디나?

양심과 비양심

○...양심과 비양심은 '서로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다. 자신의 비양심을 '다름'으로 포장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행위는 이제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시원한 바람과 푸른 자연이 포근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한게 느껴지는 곳,

나는 '가족'입니다.

나는 '경기도'입니다.

경기관광공사 gto.ggtour.or.kr/